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색도 척도의 타당도 비교

이 선 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여성들의 일생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리변화 과정의 일부로 이 과정을 통해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Lederman, 1984)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계, 혈액, 순환기계, 치아, 외피, 근골격계, 대사작용, 호르몬 분비 등의 생리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태아, 임부 자신의 건강 염려, 분만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 및 기타 가족과의 인간관계와 역할변화, 외모의 변화, 가사 및 일상활동의 제한, 약물복용, 남아선호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최연순 등, 1990). 또한 임부는 개인성격을 구성하는 사회환경, 지식, 경험 및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요구가 다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며(오현자, 1994) 분만시의 진통, 분만후의 육아 등 새로운 책임의식 속에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 속에서 자아정체와 자신감을 재확립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Lipkin, 1974).

자가 검색(self-monitoring)은 자신이 표현한 행동과 말의 사회적 적절성, 자기 표현의 통제력, 특정 상황에서서의 표현능력을 보는 것이다(Snyder, 1974). 따라서

자가 검색 정도가 낮은 경우 특히, 직장을 가진 임부나 초임부는 임신으로 인한 감정 및 심리적 변화가 여과없이 그대로 나온다면 임부는 자기가 한 표현에 대한 이차적 부작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가 검색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한번 더 여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건강한 임신과정을 경험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자가 검색도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특히 초임부는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변화가 많기 때문에(하영수, 1968; 강정희, 1980; 정송자, 1974) 자가 검색에 더 민감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타당성 있는 자가 검색도 척도를 다른 대상자 특히, 과중한 업무에 놓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간의 실무성과 혹은 제공된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하며 이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실무를 위한 간호사의 태도를 요구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 Lennox와 Wolfe(1984)의 자가 검색도 척도 및 Snyder와 Gangestad(1986)의 자가 검색도 척도 중 어느 척도가 초임부의 자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가 검색도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가장 타당성 있는 척도 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

자가 검색도(self-monitoring) 구성개념(Snyder, 1974)은 자기 표현과 표현 행동의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Snyder(1974)는 자가 검색도를 “표현 행동과 자기 표현의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황적 단서에 따라서 자기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 자가 검색도 척도의 개념

Snyder(1974)는 자가 검색도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섯 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41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자기 표현의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것이고(예, 파티와 사회적 모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거나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은 ‘자기 표현의 적절성을 가리키는 단서로 사회적 비교 정보에 주의할 기울이는 정도’이다(예,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확신이 없을 때 힌트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본다). 세 번째 요인은 ‘자기 표현 및 표현 행동을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예, 나는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라도 정색을 하고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특정 상황에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정도’이다(예, 나는 실제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 친절한 척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자기 표현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관된 정도’이다(예, 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가끔 매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들 41개 문항의 약 반은 질문에 동의할 때(true) 나머지 반은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때(false)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이다. 41개 항목 중 내적 일관성을 가장 크게 하는 25개 문항만이 선택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성 검정을 위한 Kuder-Richardson 20 reliability 계수는 .70이고, 한 달 간격으로 한 test-retest reliability 계수는 .83(df=51, p<.001)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표본을 사용했을 때 Kuder-Richardson 20 reliability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Snyder, 1974).

이렇게 선택된 25개 문항의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힘들다”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자가 검색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러한 Snyder의 자가 검색도 척도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그 개념화는 사회 심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Perleman, 1984).

2) 자가 검색도 척도의 타당도

자가 검색도 척도는 사회 심리학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았다(Briggs, Cheek and Buss, 1980; Briggs and Cheek, 1986; Cheek and Briggs, 1981; John, Cheek and Klohnen, 1996; Lennox and Wolfe, 1984).

Briggs, Cheek 및 Buss(1980)는 Snyder(1980)의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행동의 상황적 및 대인적 적절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과 자기 표현에 특히 민감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자가 검색도 척도가 5개의 요인이 아니라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 ‘중요한 단서에 대한 민감도’ 및 ‘자기 조절’. 그리고 두 표본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extraversion, acting 및 other-directedness라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1, 4, 9, 10 및 11번 문항은 일관되게 어떤 요인에도 유의하게 묶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yder도 자가 검색도 척도가 다섯 요인이 아니라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연구를 전체적인 자가 검색도 척도뿐만 아니라 세 개의 요인으로 척도를 나누었을 경우의 효과도 측정하고 있다(Snyder, 1986)

(1)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의 결여

Briggs, Cheek 및 Buss(1980)는 자가 검색도 척도의 세 요인 중 행동(acting)능력이 연구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Goffman의 척도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상 생활의 자기 표현을 관리하는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배우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ennox와 Wolfe(1984)는 새로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검색도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자기 표현 조절 능력(ability to modify self-presentation)을 측정하기 위해 표면적 타당성(face validity)이 있는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이용하여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 중

〈표 1〉 Snyder(1974)의 '자기 검색도 척도'

- (1)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힘들다.
- (2) 나의 행동은 보통 나의 진정한 감정, 태도 그리고 신념을 표현한 것이다.
- (3) 나는 단체나 사회적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 (4) 나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 주장한다.
- (5) 나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 즉석연설을 할 수 있다.
- (6) 나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7) 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확신이 없을 때 힌트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본다.
- (8) 나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9) 나는 책이나 영화, 음악을 선택할 때 친구의 도움이 거의 필요없다.
- (10) 나는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제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인다.
- (11) 나는 혼자서 코미디를 볼 때보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볼 때 더 많이 웃는다.
- (12)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13) 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가끔 매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 (14)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 (15) 나는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즐거운 척한다.
- (16) 나는 항상 밖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 (17)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나의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 (18) 나는 연예인이 되는 것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 (19) 나는 남들과 함께 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 (20) 나는 제스처나 즉흥적인 행동을 요하는 게임에 능숙하지 못하다.
- (21) 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 (22)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농담하고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 (23)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약간 어색함을 느끼고 그럴때면 내가 보이거나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한다.
- (24) 나는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라도 정색을 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 (25) 나는 실제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때, 친절한 척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 여기서 5, 6, 7, 8, 10, 11, 13, 15, 16, 18, 19, 24, 25는 true일 때 자기검색도가 높은 사람이고, 나머지 문항은 false일 때 자기검색도가 높은 사람이다.

자료원 : Snyder, Mark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0, No.4, April, pp.526-537.

acting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만으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적교 회전시켰을 때 별개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행동능력(acting ability)이 다른 두 요인인 환경 변화성(cross-situational variability)과 사회적 비교정보에 대한 관심(attention to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과 각각 .22와 .08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은 환경 변화성과 사회적 비교정보에 대한 관심과 각각 .45와 .40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acting) 능력보다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이 환경 변화성과 사회적 비교정보에 대한 관심과 더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3.50$) $p < .05$, $t(221)=15.83$, $p < .01$)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은 행동(acting) 능력보다 자기 검색도의 다른 차원과의 적합성이 더 우월하다고 결론 짓고 내적 일관성을 위해 행동(acting) 능력을 제거시켰다.

(2) 단일의 구성개념을 이룰 수 없는 하위 요인들

그런데 Briggs, Cheek 및 Buss(1980)는 자기 검색도 척도가 원래의 가정대로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자기 검색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자기 검색도의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체적인 자기 검색도와 자기 검색도의 하위 척도인 세 개의 요인이 사교성(sociability: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수줍음(shyness: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색하게 행동하는 경향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기분 나쁜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 자존감(self-esteem), 공적인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자기의 외적 또는 공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에 대한 감각으로 자기 검색도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및 사적인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내적 또는 개인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가 검색도 척도에서 '사회적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은 타인 지향적(other-directedness) 요인에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다른 두 요인과는 달리 수줍음, 공적인 자의식 및 neuroticism과 정의 관계를, 자존감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ther-directedness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고, 어색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예민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자가 검색도의 25개 문항 중 11개 문항이 이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자가 검색도 척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은 Snyder가 말하는 영리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통제자라기 보다는 불안정하고 방어적인 사람(Briggs, Cheek and Buss, 1980)이 된다. 따라서 자가 검색도 척도가 그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Lennox와 Wolfe(1984)는 자가 검색도 척도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atson and Friend, 1969),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ysenck and Eysenck, 1975)의 'neuroticism'과 'extraversion 척도'를 측정하였다. 27개의 자가 검색도 항목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52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 있고, 통찰력 있고, 사회적으로 편안한 사람이라는 Snyder(1974)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heek과 Briggs(1981)는 두 요인(민감성과 변화성)이 제 3의 변수와 상이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Snyder의 척도를 믿지 않게 만들었다.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은 다른 두 하위 요인과는 다른 패턴으로 제 3의 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자기 표현 조절 능력은 EPQ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에 나머지 두 요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상의 세 연구(Briggs, Cheek and Buss, 1980; Cheek and Briggs, 1981; Lennox and Wolfe, 1984) 모두에서 자가 검색도 척도가 그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며, 자가 검색도를 구성하는 세 요인이 제 3의 변수와의 관계가 상이해서 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의 구성개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결여

Lennox와 Wolfe(1984)는 자가 검색도 척도에서 외향성(extraversion)을 측정하는 항목을 제거시켰다. Snyder와 Gangstad(1982)는 자가 검색도 척도(Snyder, 1974)와 외향성 척도(Extraversion scale, Eysenck and Eysenck, 1968)를 측정하고 자가 검색도가 높은 집단은 자가 검색도가 낮은 집단보다 다소 더 외향적인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자가 검색도는 외향성의 결정요인이고 이들 두 변수는 별개의 것이다. 자가 검색도가 판별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어야 한다.

Lennox와 Wolfe(1984)는 자가 검색도를 측정하는 25개 항목과 외향성을 측정하는 21개 항목을 함께 요인 분석한 결과, 외향성 척도의 21개 항목 중 18개는 외향성 요인에 .30이상 포함되었고 나머지 세 항목은 어느 요인에도 유의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에 자가 검색도 척도 중 6개가 외향성 요인에 .30이상 포함되었으며 이 중 5개—자가 검색도 척도 25개 항목 중 12, 14, 22 및 23번 항목은 일관되게 외향성을 나타내었다(Briggs, Cheek & Buss, 1980; Gabreny & Arkin, 1980b; Lennox, 1982; Lippa, 1980; Snyder, 1980)—는 자가 검색도에는 .30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향성과 자가 검색도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자가 검색도 척도 중 자가 검색도 보다는 외향성과 더 공통되는 항목 5개가 있으므로 이는 자가 검색도 척도에서 제거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2. Lennox와 Wolfe(1984)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

Lennox와 Wolfe(1984)는 자가 검색도에 대한 네 번째 연구에서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은 Snyder(1979)가 요약한 구성개념 중에서 행동능력(acting ability)과 외향성(extraversion)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표현과 자기 표현에 특히 민감하다"와 이런 단서들을 자기 표현을 조절하는 지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좁은 정의로도 자가 검색도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현 행동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7개 문항과 자기 표현 조절 능력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을 고안하고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및 다른 사람의 표현 행동에 대한 민감도의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13개 문항의 척도를 얻었다. 13개 문항은 참-거짓 형태의 응답

에 의한 응답편의를 줄이기 위해 모두 6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13개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인상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자가 검색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Snyder와 Gangestad(1986)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 Lennox와 Wolfe의 척도가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Lennox와 Wolfe(1984)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내적 일관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높아진 신뢰성은 타당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Lennox와 Wolfe(1984)의 척도의 신뢰성 있는 분산(variance)의 일부는 응답 편의(bias)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13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같은 방향으로 측정되고 2개 항목만이 반대 방향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불일치된 검증(unbalanced test)에서는 리커트형 6점 척도가 사용되었을 때보다 참-거짓(true-false) 응답 형식이 사용되었을 때 총점의 분산이 응답 편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응답자가 척도의 극단에 답하려는 경향이 응답편의(response bias)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Snyder and Gangestad, 1986).

Briggs, Cheek 및 Buss(1980)는 자가 검색도 척도를 참-거짓으로 측정했을 때 반분(split half)자료에서 극단적인 편차가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척도가 명목 척도(true-false)로 설계되었을 때보다 등간척도 이상으로 설계되었을 때 적용가능한 통계 기법들이 더 많다. Snyder(1974)가 자가 검색도 척도를 개발할 때 등간척도로 설계했다더라면 척도 구성항목의 판별 타당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D값—자가 검색도(self monitoring)가 높은 쪽으로 응답하는 총점수중에서 상위 1/3에 해당하는 점수와 하위 1/3에 해당하는 점수간의 비율 차이(Mark Snyder, 1974 p.531)—을 산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연구자들마다 25개 문항이 모두 특정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격분석을 위한 척도는 분명하고, 간결하고, 모호하지 않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여져야 하는데(Jackson, 1971), Lennox와 Wolfe

(1984)의 척도는 반대로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nyder and Gangestad, 1986). 그런데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 중에서도 Snyder와 Gangestad(1986)가 비판한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나는 책이나 영화, 음악을 선택할 때 친구의 도움이 거의 필요없다,” “나는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제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남들과 함께 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농담하고 이야기하도록 둔다” 등의 항목은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3. Snyder와 Gangestad(1986)의 축소된 자가 검색도 척도

Snyder와 Gangestad(1986)는 이러한 세 가지 비판과 함께 원래의 25개 문항 중에서 회전시키지 않은 요인 분석에 의해 세 개의 요인에 요인적재치가 .15이상 포함되는 18개 문항으로 축소된 새로운 자가 검색도 척도를 제시하였다 - 25개 문항 중 2, 7, 9, 10, 11, 15, 19번을 제외한 18개 문항으로 자가 검색도를 측정하였다. 이 18개 문항 중 7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30을 넘지 않는다.

- 요인 1. expressive self-control : 표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예) 8번문항-나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4번문항-나는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라도 정색을 하고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 요인 2. social stage presence :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의 경향과 사회적인 주목을 끄는 경향
 - 예) 12번문항-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
 - 22번문항-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농담하고 이야기하도록 둔다.
- 요인 3. other-directed self-presentation :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것
 - 예) 25번문항-나는 실제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 친절한 척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 6번문항-나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가 검색도에 대한 구성개념을 확대시켰다. 자가 검색도가 높은 사람을 “주의를 끌고, 인상을 만들고(make impression) 때때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연기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람”으로, 자가 검색도가 낮은 사람을 “정반대의 사회적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진짜 느낌과 기질을 의사소통하려 한다”고 했다 (Snyder, 1989, p.178).

John, Cheek 및 Klohnen(1996)은 여기서 언급된 구성개념의 특성이 원래의 25개 문항의 척도에서 중심이 되던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타인지향성(other-directed) 관심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검색도 구성개념의 독특성(unicqueness)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18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는 사회적 잠재성(social potency) 척도(사회적 주의를 끌려는 경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설득력 그리고 리더십을 측정하는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18개 항목의 자가 검색도와 social potency 척도간에 유의수준 .05에서 .56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를 나타내고 있어서 매우 비슷한 측정도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원래의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를 18개 문항으로 개정하고 그 구성개념을 조절했을 때, 자기 표현의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관심(other-directedness)과 같은 원래의 구성개념의 중요한 측면을 약화시켜서 구성개념이 외향성(extraversion)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타인지향성(other-directedness) 측정이 남아있는 18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John, Cheek 및 Klohnen(1996)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검색도 척도가 두 개의 요인—두 개의 요인은 공적수행(public performing) (예, 나는 연예인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과 타인지향성(other-directedness) (예, 나는 실제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 친절한 척 함으로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이다—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개의 요인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Briggs와 Cheek (1988), Gross와 John(1996) 및 Nowack과 Kammer(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Briggs와 Cheek(1988)의 두 개의 요인이 단일 구성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집중(convergence)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관찰자의 자료와는 비교되지 않고 단지 자기 평가에 의한 자료만으로 검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기(Krosnick and Sedikides, 1990, p. 725) 때문에, John, Cheek 및 Klohnen(1996)은 자기 평가 자료와 관찰법에 의한 자

료 둘 다를 기초로 두 개의 자가 검색도 요인이 서로 0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자가 검색도 척도와 타인지향성(other-directedness) 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도 입증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단일의 성격(personality)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척도의 하위 요인이 다른 제 3의 변수와의 관계가 서로 상이하고, 하나로 합해졌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discrimant validity), 이해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및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결여된 척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검색도의 두 하위 차원들을 별개의 것으로 사용하여 여전히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 검색도 척도가 이미 사회 심리학자들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척도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John, Cheek 및 Klohnen(1996)도 조심스럽게 자가 검색도의 두 요인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Briggs and Cheek, 1988 ; Gangestad and Simpson, 1990, 1993 ; Hiyle and Lennox, 1991).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와 Lennox와 Wolfe(1984)의 자가 검색도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실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와 Lennox와 Wolfe(1984)의 자가 검색도 척도를 번역하고, 번역된 자가 검색도 척도는 true-false로 응답하는 척도가 아니라 Likert형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Snyder(1974)의 자가 검색도 척도(self-monitoring scale)는 경성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산전진찰을 받는 초임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Lennox와 Wolfe(1984)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Revisited self-monitoring scale)는 경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외래의 초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PC SAS 6.12와 Window용 LISREL 8.12를 사용하였다. SAS package는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Cronbach α 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LISREL 8.12는 확증적 요인 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es)을 위해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nyder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Snyder(1974)의 가설대로 25개 문항의 척도가 요인 분석에 의해 다섯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nyder(1974)가 다섯 개의 요인 각각에 대해 예로 든 SM3, SM24, SM25, SM13 및 SM7은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으로 John, Cheek 및 Klohnen(1996)이 주장한 대로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를 두 요인으로 사각회전(Harris-Kaiser ortho-oblique)시킨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Lennox와 Wolfe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

13개 문항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를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Lennox와 Wolfe(1984)가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에서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한 다른 사람의 표현 행동에 대한 민감도는 요인분석시 요인의 갯수를 지정한 경우 <표 5>과 요인의 갯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표 4> 모두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첫 번째 요인으로 분류한 자기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요인의 갯수를 지정한 요인 분석에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

<표 2> Rotation Method : Varimax

설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SM1	0.10324	0.21871	0.08486	0.60123	0.17614
SM2	0.13123	0.00893	0.15124	0.38300	0.04723
SM3	0.03164	0.03137	0.62703	0.05150	0.09345
SM4	0.02313	-0.28501	0.50305	-0.02312	0.02183
SM5	0.61568	0.19514	0.28923	0.17101	0.01267
SM6	0.62674	0.04060	0.35670	0.03451	0.25582
SM7	0.00341	0.14947	0.35900	0.65567	0.03212
SM8	0.60261	0.06174	0.21298	-0.27779	0.34456
SM9	0.08645	-0.41400	-0.40987	0.34500	0.07456
SM10	0.16432	0.21122	0.01290	0.15678	0.65962
SM11	-0.11531	0.04562	0.42131	-0.23432	0.45321
SM12	0.74577	0.01573	0.15656	0.14566	0.05312
SM13	-0.06743	0.53906	0.01290	0.34899	0.04003
SM14	0.60212	0.02222	0.31214	0.15866	-0.07452
SM15	0.04536	0.51980	0.40110	-0.20012	0.12858
SM16	-0.14412	0.47453	0.01561	0.17890	-0.28737
SM17	-0.41212	0.13341	0.68552	0.17781	0.00341
SM18	0.44785	0.10067	0.00470	-0.27227	0.42087
SM19	0.06342	0.05314	0.64529	-0.21222	0.37898
SM20	0.61312	0.08765	0.09578	0.19978	-0.25971
SM21	0.61777	0.01271	-0.43013	0.11126	-0.20782
SM22	0.18968	0.16732	-0.33941	0.21488	-0.26341
SM23	0.65656	0.19115	0.07867	0.18008	-0.25001
SM24	-0.40024	0.70990	-0.34348	0.07812	-0.01288
SM25	0.10034	0.78345	-0.34585	0.06473	0.04545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5.33111	4.07462	3.54224	3.03774	2.47853

〈표 3〉 Snyder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두 요인 분석

설문문항	요인 1	요인 2
SM1	-0.24467	0.21278
SM2	0.12153	0.40111
SM3	-0.08055	0.35229
SM4	0.02045	-0.23444
SM5	0.60457	0.02262
SM6	0.62456	-0.38671
SM7	-0.23671	0.27222
SM8	0.70012	0.13476
SM9	0.00187	0.06748
SM10	-0.16092	0.25002
SM11	0.13336	0.38771
SM12	0.71034	-0.34002
SM13	-0.02691	0.43356
SM14	0.63676	-0.40551
SM15	0.13994	0.67772
SM16	0.16676	0.46604
SM17	-0.07724	0.50034
SM18	0.48656	-0.34006
SM19	0.15434	0.65399
SM20	0.73304	-0.28912
SM21	0.64982	-0.39923
SM22	0.22007	-0.21432
SM23	0.60815	-0.20238
SM24	-0.24512	0.30011
SM25	-0.22215	0.40006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5.427766	3.53192

〈표 4〉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의 요인분석 (Nfact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Rotation Method : Varimax

설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SM1	-0.22112	0.64521	0.01332	-0.01281
SM2	0.06342	-0.01263	0.70046	0.01889
SM3	0.03281	0.24212	0.70011	0.11121
SM4	-0.03004	0.30561	0.32045	0.65001
SM5	0.11297	0.65342	0.20012	0.16231
SM6	0.01845	-0.04599	-0.00434	0.78031
SM7	-0.27481	0.56765	0.06986	0.03512
SM8	0.60964	0.04521	0.19234	-0.28889
SM9	0.55552	-0.38332	0.27342	0.00966
SM10	0.61221	0.10445	0.02867	-0.00616
SM11	0.62793	0.04010	-0.36112	0.34510
SM12	0.70321	0.10003	0.00341	0.04510
SM13	0.35021	0.20012	0.10111	0.10051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3.45537	2.46198	2.23791	1.95036

이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의 갯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세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M7과 SM13은 요인 1과 요인 2 둘 다의 요인 점수(factor loading score)가 .3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의 두 요인 분석(Nfact를 지정한 경우)

Rotation Method : Harris-Kaiser, Nfact=2

설문문항	요인 1	요인 2
SM1	0.10143	0.44435
SM2	0.11156	0.48891
SM3	0.12001	0.62121
SM4	0.10110	0.70050
SM5	-0.22001	0.68225
SM6	0.02811	0.30012
SM7	-0.38111	0.45007
SM8	0.61234	-0.35706
SM9	0.54127	-0.33498
SM10	0.72139	0.16113
SM11	0.64001	0.19897
SM12	0.72991	-0.34545
SM13	0.60045	-0.38001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3.70646	2.63001

특히 SM1(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것이 요구된다고 느끼면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SM5(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요구에 맞게 나의 행동을 적응시킬 수 있다) 및 SM7(일단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는 요인의 갯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문항은 Snyder와 Gangstad(1986)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약간씩 다른 방법으로 묻고 있다. 그리고 〈표 4〉에서 SM1, SM5 및 SM7과 같은 요인으로 나타나는 않았으나 내용이 유사한 문항으로 SM4(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가 있다. 그래서 이 네 문항의 상관관계 계수를 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계산한 결과 13항목 전체의 α 값은 .723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의 α 값은 .6821로, 요인 2의 α 값은 .7312로 나타났다.

〈표 6〉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SM1	SM4	SM5	SM7
SM1	1.000			
SM4	0.18102***			
SM5	0.2561 ***	0.3287 ***		
SM7	0.18571***	0.18544***	0.40114***	1.000

p<.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 요인 분석 결과 λ (lambda) 값의 t 값이 모두 1.96을 넘어서 두 요인으로 구성된 13개 문항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가 집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과 요인 2로 구분될 때 χ^2 값은 125.712인데 비해 〈표 8〉의 요인 1과 요인 2 간의 phi 값을 1로 고정 하였을 때의 χ^2 값이 137.901로 커져서, 두 요인으로 구성된 13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7〉 λ (lambda) 값을 기준으로 한 집중 타당성 검증

	Parameter	ML estimate	S.E.	t-Value
요인 1	SM1	1.000		
	SM2	1.196	.348	3.220
	SM3	1.872	.457	3.773
	SM4	2.002	.511	3.661
	SM5	2.111	.497	4.023
	SM6	1.055	.342	2.451
	SM7	1.554	.428	3.451
요인 2	SM8	1.000		
	SM9	1.034	.221	4.341
	SM10	1.561	.203	5.511
	SM11	1.240	.210	5.882
	SM12	1.115	.207	5.607
	SM13	1.300	.241	5.220

〈표 8〉 ϕ (phi) 값을 기준으로 한 판별 타당성 검증

	phi 값	요인 1	요인 2
요인 1		.545	
		(.170)	
요인 2		4.399	
		.281	.517
		(.052)	(.124)
		3.335	3.867

그런데 〈표 9〉에서 보면 SM7과 SM13의 MI 값이 3.84(1.96²)를 넘어서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SM7과 SM13이 제외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의 요인 분석 결과에서 SM7과 SM13이 요인 1과 요인 2 둘 다에 요인적재치 .30 이상 적재된 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요인 분석 결과와 단일차원성 검증 결과를 기초로 SM7과 SM13이 제거되었을 때 더욱 타당성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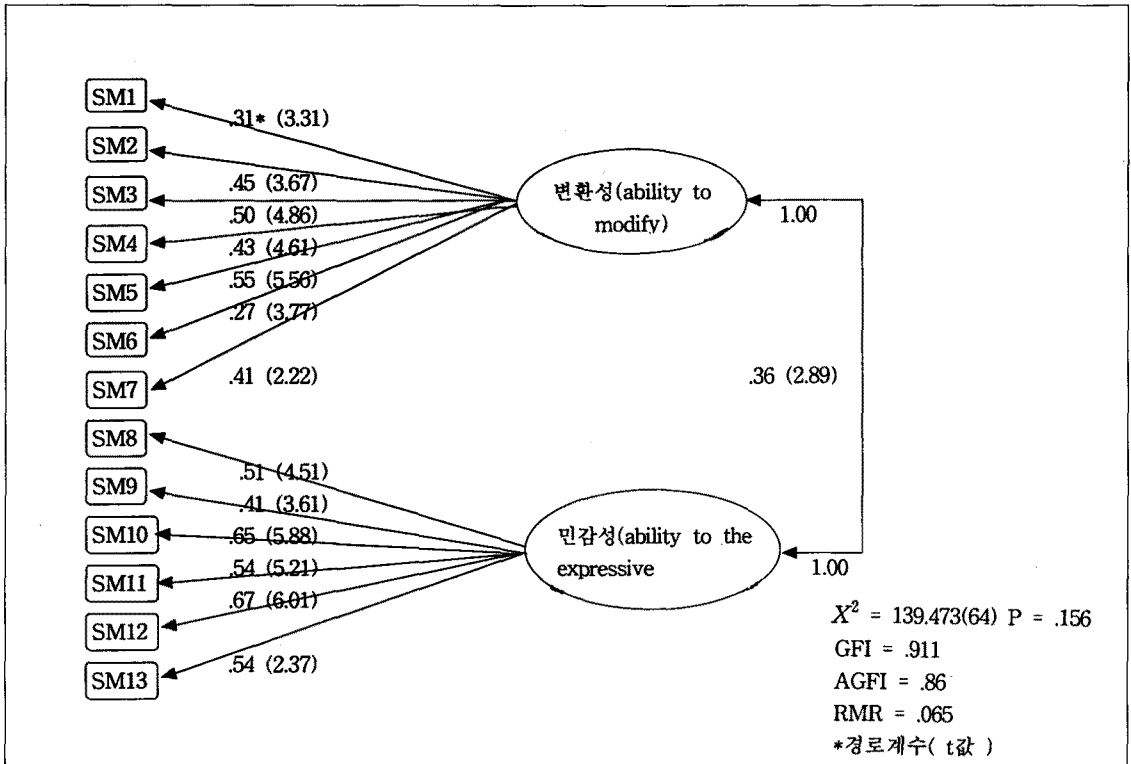
〈표 9〉 MI (modification indices for lambda-x) 값을 기준으로 한 단일차원성 검증 결과

MI 값	요인 1	요인 2
SM1		.013
SM2		.022
SM3		.545
SM4		.745
SM5		.023
SM6		.222
SM7		6.125
SM8	.567	
SM9	1.234	
SM10	.056	
SM11	.431	
SM12	.731	
SM13	6.804	

〈그림 1〉의 최적모형에 대해서 모형이 주어진 자료의 변량이나 공변량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GFI 적합도지수는 .911로 나타났다. Silva(1988)의 연구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가 200 이상에서 GFI가 적어도 .9 이상이어야 모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고, .95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GFI를 고려하였을 때 Silva의 1988년 연구의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최적모형은 자료의 구조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최적연구 모형의 NNFI(적합도 지수)는 .88로 나타났다. NNFI의 분모는 가장 안 맞는 모형과 가장 잘 맞는 모형 사이의 일종의 거리를 의미하며, 분자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가장 안 맞는 모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리를 의미한다. Silva(1988)는 NNFI가 나쁜 모형을 잘 기억하며 표본의 크기에 제일 영향을 안 받는 좋은 부합지수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Bentler와 Bonett(1980)는 NNFI가 .9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하였다. NNFI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최적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적연구 모형의 표준화된 RMR 적합도 지수는 .065



〈그림 1〉 13개 항목의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었다. 이 지수는 분석자료의 매트릭스와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산된 매트릭스간에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순목(1990)에 의하면 분석자료가 상관관계 자료이면 .05 이하(가능한 낮은 값)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RMR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최적모형은 자료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최적연구 모형의 Chi-Square는 139.473이었으며, 자유도는 64, p값은 .156으로 나타났다. Chi-Square값이 크기 때문에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순목(1990)에 의하면 Chi-Square는 표본의 크기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표본이 매우 크면 모델이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도 모델과 현실간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다. 또한 이순목(1990)은 모델이 과학적으로 의미있을 경우에도 통계치는 심각한 우려를 보내주는 모순을 우리는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하여, 통계적 유의성으로 인해 과학적 중요성을 회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이 245개로 충분하

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Chi-Square값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가 검색도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제 척도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는 원래의 Snyder(1974)가 주장한대로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Briggs, Cheek 및 Buss(1980)가 주장하여 Snyder와 Gangestad(1986)도 수용한 바 있는 3개의 요인, John, Cheek와 Klohnen(1996)이 주장한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는 같은 요인 내에서는 집중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요인간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5개 문항이 수 차례에 걸친 연구마다 다른 수의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내용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몇 개의 요인으로 분

석하는 25개 문항 모두가 각 요인에 대해 .30이상 적재되지는 않았다.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요인 분석 결과도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가 5개의 요인, 3개의 요인 및 2개의 요인 중 어떤 방법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단일의 구성개념을 이룰 수 없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 척도의 심각한 결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8개 문항으로 '축소된 자가 검색도 척도'는 원래의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래 척도의 매력을 상실시킨 척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Snyder의 자가 검색도 척도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 척도라고 하더라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척도를 계속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자가 검색도의 구성개념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Lennox와 Wolfe(1984)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본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원래의 가정대로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각 요인별 및 전체 항목의 Cronbach's α 를 기준으로 한 신뢰성 검정 결과로도 신뢰성 있는 척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에 덧붙여 LISREL 8.12로 확인 요인 분석을 한 결과, 13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를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및 단일차원성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있는 자가 검색도의 척도가 어떤 척도인지를 알 수 있다. 25개 문항의 자가 검색도 척도와 18개 문항의 축소된 자가 검색도 척도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타당성이 없는 척도로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로도 타당성이 없는 척도라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에 반해 13개 문항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는 본 연구의 자료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척도라는 것이 검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초임부의 자가 검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가 검색도 척도나 축소된 자가 검색도 척도보다는 13개 문항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13개 문항의 개정된 자가 검색도 척도가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번과 13번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7번과 13번 문항이 두 개의 요인 모두에 .30이상 포함되어 이러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 초임부 표본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척도 자체의 문제인지 검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본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정희 (1980). 임신부의 불안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미옥 (1992).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정 (1990).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서울: 문음사.

김명자, 송경애 (1990). 류마티스양 관절염 환자의 불건강, 자기존중감, 성격 및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0(2), 185-194.

김용래 (1995). 자아개념척도의 타당화 분석. 교육연구논총, 12, 43-80.

김혜원, 홍경자 (1996). 임부의 모성 정체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6(3), 531-543.

나승규 (1993). 우울한 대학생과 우울증 환자간의 비효율적 태도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순림 (1996). 항암치료 환자에게 시행한 자기간호교육과 자원동원성 수준이 적극적 대처 행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향숙, 이은숙 (1989). 자가간호역량의 행사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예측요인조사. 대한간호학회지, 19(3), 273-283.

송애랑 (1984). 건강통제위 성격, 자아존중감 및 자가간호행위의 관계분석-폐결핵 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아 (1996). 초임부의 자아개념, 우울, 임신 및 분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목 (1998). LISREL Workshop 참고자료집. 충남대 간호대학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원희 (1985). 자궁암 검진행위 이행자와 비이행자간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건강신념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송자 (1974). 입부의 공포와 개인 및 환경변인의 상호 관계에 관한 논문. 대한 간호학회지, 4(2), 131-143.
- 황미화 (1992). 건강통제위 성향과 수술후 회복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earden, W. O., Richard, G. N., & Mary, F. M. (1993). Handbook of marketing scales : Multi-item measures for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SAGE Publications.
- Becherer, R. C., & Lawrence, M. R. (1978). Self-monitoring as a moderating variable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 December, 159-162.
- Briggs, S. R., Jonathan, M. C., & Arnold, H. B. (1980). An analysis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79-686.
- Brinberg, D., & McGrath, J. E. (1982). Network of validity concepts within the research process. In D. Brinberg & L. Kidder (Ed.) New directions for methodology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 Forms of validity in research. Jossey-Bass. pp.5-22.
- Gerbing, D. N., & Anderson, J. A.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 May, 186-192.
- Hayduk, L. A. (198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ackson, D. N. (1971). Structured personality test. Psychological Review, 78, 229-248.
- John, O. P., Johathan, M. C., & Eva, C. K. (199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 Construct explication with Q-Sor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763-776.
- Jörg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Jörgskog, K. G., & Sörbom, D. (1982). Recent developmen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November, 404-416.
- Lennox, R. D., & Raymond, N. W. (1984). Revision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349-1364.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al self-concept : Theoretical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ical Review.
- Marsh, H. W., Craven, R. G., & Debus, R. (1991). Effect of internally focused feedback an attributional feedback on enhancement of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57-69.
- Peter, J. P., & Churchill, J. A. (1986). The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design choices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rating scale :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 February, 1-10.
- Rust, R. T., & Cooil, B. (1994). Reliability measures for qualitative data : Theory and implic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 February, 1-14.
- Silva, S. (1988). Effect of sampling error and model misspecification on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Snyder M.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April, 526-537.
- Snyder, M. (1980). Self-monitoring process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Y. : Academic Press.
- Snyder, M., Ellen, B., & Peter, G. (1985). Interpersonal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427-1439.
- Synder, M., & Nancy, C. (1980). Thinking about ourselves and others : Self-monitoring and social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9), 222-234.

- Snyder, M., Nancy, C., & Gangestad, S. (1982). Choosing social situation : Two investigations of self-monitoring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23-135.
- Snyder, M., Nancy, C., &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139.
- Snyder, M., Nancy C., Gangestad, S., & Jeffry, A. S. (1983). Choosing friends as activity partners : The role of self-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5), 1061-1072.
- Snyder, M., & Jeffry, A. S. (1984). Self-monitoring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 1281-1291.
- Snyder, M., Jeffry, A. S., & Gangestad, S. (1986). Personality and sexu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81-190.

- Abstract -

Key concept : Self-monitoring, Self-concept, Scale

Study of the Validity Test on the Self-monitoring Scale for Primi-Gravida

Lee, Seon Ah*

In this study, both the literary survey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has been execut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scales that measure the construct of self-monitoring scale for Primi-Gravida. The self-monitoring scale could not b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as Snyder suggested. Many other scholars (Briggs, Cheek and Buss, 1980) suggested 3 different classifications which was accepted by Snyder and Gangestad (1986). John, Cheek and

Klohnen(1996) claimed a two-factor classification.

As has been discussed, factor analysis is used to prove convergent validity within the factor and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the factors. However, depending on the researchers, many variations in classification of the factors were found and a lack of cont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as found in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Snyder's self-monitoring scale, did not factor-load at over .30 for all 25 items, regardless of how many factor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findings of this study, the self-monitoring scale neither classified as five, three or two factors nor factor loaded as hypothesized. It is also clear that Snyder's self-monitoring scale lack convergent validity as the sub-factors of the scale fail to prove its uni-dimensionality. The A self-monitoring scale not only fail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nyder's self-monitoring scale but even lost the attractiveness of the self-monitoring scale. In this study, it was also found that the A self-monitoring scale was not classified as hypothesized in either in a two or three-factor classification.

It is, of course, not desirable to use any scale that lack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en though it has been widely used but also has held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Snyder's self-monitoring scale, Lennox and Wolfe(1984) suggested 13 items. This study 1. was dedicate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in which we found that the data presented in validity as the two factors were classified and loaded as expected. Reliability was also proven by checking Cronbach's α for each factor and for the total items. In additi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executed for the 13 items using LISREL 8.12 program to confirm convergent validity in a two-factor classification. The model was fitting and sound ; however, the self-monitoring scale was unfitted and not validated.

* Doctor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Thus, it is recommended to use not the original or the abbreviated self-monitoring scale but the 13 items in future studi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tems 7 and 13 should be removed to obtain better uni-dimensionality for the 13 items. These items loaded at over .30, too high for the two factors in the

test results of factor analysi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ouble-check the cause of two-hold loading at over .30 for the two factors. It could be a problem caused by data or by the scale itself. Therefore, additional studies should follow to better clarify this matter.